

# 협동·연대 전북 혁신 도모

### 도, 사회적경제주간 행사 개최... 기업인 등 100여명 참석 유공자 포상·활성화 다짐 등 범도민적 확산 계기 마련

전북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공동으로 '2019년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성환 도의회 의장, 김승환 교육감, 송병주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송경용 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 이사장, 사회적경제 분야 기업인,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주간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매년 7월 첫째주를 정하고 있고,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 7월 6일(첫째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제2회를 맞이하여 중앙 행사인 통합박람회와 7월 5~7일 대전에서 개최되며, 도 주관 행사는 이번 기념식과 토론회 등으로 열린다.

오늘 기념행사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실천과제에 대한 범도민적 확산을 위해 '전년전북! 협동과 연대로 사람을 향한 나다'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인

과 지원기관, 활동가 등이 함께 모여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기지가 될 수 있고 사회적경제가 꽃필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사회적경제가 전북 경제의 포용적 성장의 동력 모델이 되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활동가 및 기업인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60년대 어려웠던 지역 경제를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입실 치즈의 아버지인 고정환 신부 추모 영상 상영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다짐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인식개선과 공공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공공구매 상담존 등 11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 구매 상담, 구매제도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공공기관 등 구매 담당자들에게 공공

구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공영역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전북의 사회적경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관한 전문가 2명의 주제 발표와 송하진 전주대학교 교수 외 5명이 참여하는 주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이현민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제안하였고, 전북연구원 황영도 산업경제연구부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규모는 전국의 약 7.2% 비중으로, 1400여개의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2019. 6월말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사회적경제주간 행사를 계기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 하는 등 사람중심 경제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전북도, 장마·태풍 대처상황 점검

### 재해취약 지역 예찰 강화 조치 시설물 안전관리 등 대응 만전

전북도는 올해 장마 및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각 시군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제로 개최되는 '장마 및 태풍 대비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통하여 중앙부처 및 타 시도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전북도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장마가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달 중순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고, 장마전선이 위치하는 지역에는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우리 지역에 평균 41.5mm의 비가 내렸으며, 앞으로 7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장맛비가 예보됨에 따라 확대 붓고나 산사태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호

우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 상황관리를 통하여 배수펌프장 적기 가동, 하천 둔치주차장 차량 사전 대피 조치토록 하고, 침수우려지역 등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태세를 강화했다.

시·군에서는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사전 전자토록 했으며, 텔레비전(TV) 자막방송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토록 했다.

만일 호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에 신고하고, 공공시설의 피해는 호우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의 피해신고는 호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 군산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군산시가 새만금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5%였던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로 조정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 조성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 세부사

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군산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0%에서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은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산단 입주유치를 촉

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과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산단입지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25,4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개공구 18.5km를 매립해 조성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1·2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332ha 중 149.7ha(45%)가 분양완료 됐다.

1공구의 경우 정부(80%), 군산시(14%), 전북도(6%)가 함께 분담해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100만㎡를 조성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새만금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전북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선정

전북도는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2019년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에 정읍 용산호 수변 생태공원 조성, 입실 개방바두 뉴-임실극장, 고창 교촌마을 골목조성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토부가 2015년부터 공모사업을 도입했으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다른 사업에 비해 지역주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에는 정수, 무주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51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행

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 공사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3개 시군 사업은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없이 60억(1개 사업당 국비 20억)을 지원받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윤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추진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반려동물 천만시대, 펫코노미-펫푸드 육성하자'

### 전북연구원, "신성장동력으로 펫 비즈니스 기반 조성해야"

전북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펫 푸드(Pet-Food) 산업을 육성하자는 정책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성기)은 최근 이슈브리핑(통권 188호) '반려동물 천만시대, 펫코노미-펫푸드 육성하자'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기반이 우수한 전북의 강점을 살려 반려동물 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펫코노미(Petconomy)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가족 및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에 따라 최근 펫 팜 족(Pet+Family), 펫 코노미(Pet+Economy)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사료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전용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투명성, 기능성 등이 강조되고 있어 정부도 2015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반려동물사업 육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재 연구위원은 전북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최적지로 펫 푸드 산업과 펫코노미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양호하다는 주장이다.

세계적인 펫 푸드 생산 기업(로얄캐닌)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해 있으며, 대변은행,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지역 내 펫 푸드 관련 R&D 기관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

공기관 중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은 펫 푸드와 연계한 R&D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프라 및 R&D 기관들을 연계해 우선 펫 푸드 생산·가공·유통·R&D 거점을 육성한 후, 2단계로 펫코노미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펫 푸드 거점 육성을 위해 김제시 사료공장을 중심으로 펫 푸드 생산거점을 강화, 임실군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가공산업 육성과 물류단지 조성, 순창군과 정읍시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능성 평가 및 실증·산업화 지원, 나아가 혁신도시를 연계한 R&D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농가 및 공동체 조직을 활용하여 펫 비즈니스 영역 중 펫 플레이, 펫 리빙 등과 관련된 펫코노미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